

지역자원 활용 청년창업 성과 공유

정약용의 차 제조법·대나무 디저트·해양 페그몰 수세미 등 56팀 로컬픽 공유회 창업 노하우 발표...전남도 사업화·멘토링 등 지원

정약용의 차 제조법, 대나무 디저트, 해양 페그몰로 만든 수세미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들이 지역 청년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고 전남으로 이주한 청년 창업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전남도는 지난 8일 동부청사에서 '지역자원의 힘, 창업의 땅 전남'을 주제로 '로컬 픽(Local Pick)',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성과 공유회'를 열어 창업 노하우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역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의 꿈을 갖고 전남으로 이주한 청년 창업가를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성과 전시, 초청특강, 토크콘서트 등 창업 노하우를 나누는 공유의 장이 됐다.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호 사업으로 중점 추진한 사업이다. 행사에 참석한 56팀의 창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업을 바라는 16개 군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자원조사 활동을 거쳐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혜택을 통해 창업 완료 후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에게 지역 자원 연계 청년 창업 성공 비결을 전수하기 위해 안태양 ㈜뚜두드컬처랩 대표의 초청 강연, 창업에 성공한 3명의 패널이 로컬 픽 청년 창업가 4명과 함께 '성공을 위한 창업가 정신과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주제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토크콘서트 참가자는 정약용 제다법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로맨 TEA' 플랫폼 구축과 체험 관광 상품 운영을 계획하는 강진 이진나 마운티 코리아 대표, 대나무를 활용한 크로칸슈 및 디저트 3종을

브랜드화해 베이커리 가게를 창업한 담양 문창훈 반하담 대표, 해양 페그몰을 이용한 수세미 및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에 성공해 상품화를 준비 중인 신안 최영모 퍼플웨일 대표, 직접 수확한 벌꿀을 제품으로 판매 중인 화순 송부영 ㈜버팀 대표다.

이들은 창업 과정 중 겪는 자금 부족, 매출 부진 등 위기 극복 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한 새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기까지 사업화 자금, 멘토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 자원을 연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해 더 나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56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까지 성과가 우수한 30여 팀을 선정해 사업고도화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재생에너지 수익금 기부

장흥군에 10년간 2억여원

전남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장흥태양광발전소 수익금으로 총 2억1000만원을 장흥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올해 마을회관 건립지원금 1000만원과 지역발전금 1000만원을, 앞으로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간 매년 1000만원의 지역발전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장흥태양광발전소는 3MW 규모로 2022년 8월부터 매년 3700M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장흥군 전체의 7%에 해당하는

1638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1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을 인정받아 산업부가 주관한 2023년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전남 인재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33억원을 쾌척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장흥모 사장은 "도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함으로써 ESG 경영의 사회적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고흥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담양보건소 등 4곳 우수사례 발표

전남도는 지난 8일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도, 광역·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에 나섰다.

성과대회에선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과 유공자 시상, 실무자 간 우수사례 공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공헌한 담양군보건소, 구례군보건소의료원, 화순군보건소, 해남군보건소, 장평우리병원 등이 전남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2명에 대해 전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전남도는 시군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사례 21건을 발굴했으며, 심사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담양군보건소는 우울 등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사회 주민 찾아가는 마음건강추진의 운영, 구례군보건소의료원은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정신건강증진 마음건강사업, 화

순군보건소는 청년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보건소는 위기가구 및 마을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는 도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검사, 정신응급상황 대응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10개소)과 위기 개입 확대 운영(22개 시·군), 보건·의료취약지역 이동상담실 운영과 마음안심버스 운영, 생명사랑마을 지정(2000개소), 생명지킴이 양성(2000명) 등 매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성과대회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정신건강 통계집, 홍보물, 교육자료 등도 전시해 시·군 간 사업 정보도 공유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관리·예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과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전남도, 적극 동참 당부 영암서 안문협과 워크숍

전남도가 지난 8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민선8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전남도협의회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워크숍에는 전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남교통연수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10개 기관단체와 시군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우선 배려 정책, 보행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민관경 협업을 통한 교통캠페인 및 다각적 홍보 등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1을 통해 2017년 378명

2023 안문협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워크숍



에서 2022년 기준 202명으로 약 48%를 줄였다. 올해 시즌 2를 본격 시작해 2026년 128명까지 감

축, 교통안전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공헌 최고등급

복지부·사회복지협회 인정 받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인 5등급을 달성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선도하는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 복지 중사자 및 시설의 역량강화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강성취 원장은 "이번 성과는 전 임직원이 도민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서 비롯된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1월 제14회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추전에서 종합대상을 수여하는 등 지역 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지식재산 지원 중기 혁신성장 견인

403개사 매출 13%·고용 23% 증가

전남도가 전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에 나서 기업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도내 403개 업체에서 매출과 고용이 각각 13.5%, 23.2% 증가하는 등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발명 품도 조성과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과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상표, 디자인지권 사업 등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중심으로 창업에서 수출까지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원스톱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 범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 개인발명가,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의 특허보호 및 이를 활용한 신규창업 지원에 관한 'IP디딤돌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64개 중소기업과 39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788건의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 전년 대비 매출액 평균 13.5%, 고용인원 23.2%, 해외 지식재산 출원 81% 증가 성과를 거뒀다. 우수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도 16개사나 탄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